

증경 총회장단 및 임원 워크숍

제106회기 총회장 박형진 목사와 임원진은 증경총회장단을 초청하여 연찬회를 겸한 워크숍을 가지고 교단 발전을 위해 친목과 단합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3일(목) 오전11시 대천장로교회(김관영 목사)예배당(충남 보령시 어을길 20 소재)에서 감사의 예배로 일정을 시작하였다.

워크숍에 앞선 감사의 예배는 경서노회 김요환목사(송악권능교회)가 인도하는 찬송의 순서로서 시작되었다. 개회예배는 총회서기 김정호 목사(한소광교회)가 인도자로 나섰다. 증경부총회장 김일출 장로(소성교회)가 대표기도자로 나섰다, 부서기 김종봉 목사(낙원교회)는 열왕기상 19:5-8을 봉독하였다.

설교자로 나선 총회장 박형진목사(새은혜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

만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특별기도는 자유민주주의와 복음으로 평화통일을 위하여/ 증경총회장 황호관 목사(꾸꾸는교회), 제20대 선거에 바른 지도자가 선출 되기를/ 증경총회장 임종학목사(재인교회), 한국교회와 개혁교단을 위하여/ 증경부총회장 권병락 장로(서현교회), 코로나종식과 예배회복을 위하여/ 증경총회장 정완득목사(성인교회), 노회와 전국교회 및 연합회위에/ 증경부총회장 이영진장로(좌포은총교회)가 각각 대표로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사무총장 박만진목사(덕소제일교회)가 교단 소식과 오늘의 일정을 소개하고 직전총회장 이경근목사(평안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총회장 박형진 목사의 오찬; 회계 조성윤장로의 만찬 호스트



한편 코로나 확진자로 참석하지 못한 분도 있지만 26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총회장 박형진 목사는 참석자들을 위하여 오찬을 준비해

극진히 대접하였다. 오찬 후에는 보령해저터널을 통과하여 원산도 바이오테에서 티타임을 가지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등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었으며,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관람으로 사막을 체험하고, 회계 조성윤장로가 초청한 만찬으로 1차 워크숍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교육부 실행위원회 영상회의

금년 제38회 전국교역자여름수양회 6월20일~23일; 제주도에서

제106회기 교육부(부장 김정용목사) 실행위원회는 지난 3월 16일(수) 오후 4시, 화상회의를 통하여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무에 앞선 개회예배는 교육부 총무 김요환목사(송악권능교회)가 인도하였으며, 직전총회장 이경근목사(평안교회)가 기도하였다. 교육부장 김정용 목사(중울산교회)가 계시록 21:6-7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증경총회장 정완득 목사(성인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날 회의에 상정되어 결의한 주요 사항은 제 회 전국 교역자 여름수양회장소를 제주도로 확정하고, 사무총장과 서기가 사전 답사 시에 접근성과 집회장소 등을 고려하여 섭외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확정하기로 하고, 등록비는 개인 10만원(부부 등록 시 18만원, 4인 1실 기준)으로 하고, 50만 원 이상 찬조한 경우에는 2인 1실(부부)을 배정하기로 하였다.

비행기 표는 6월 20일 오후 5시까지 수양회장소에 도착할 수 있도록 노



회별로 예약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수양회의 주제를 ‘섬과 회복을 통한 하나 됨’(시51:12)으로 정하는 한편, 대사항은 제 회 전국 교역자 여름수양회장, 증경총회장 정완득목사(성인교회), 준비위원장; 직전총회장 이경근목사(평안교회)를 각각 추대하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22일(수요일)낮에는 마라도(도선로 개인부담)와 내륙 중 취향을 따른 택일관광 시간을 갖기로 정하였다.

5월 23일(장소, 시간 추후통지)교육부전체회의에서 강사를 비롯한 예비위원 등을 최종확정하기로 하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양회 장소를 제주

도로 정하게 된 배경을 설득력 있게 전해 주었다.

그는 3년 전에 가졌던 제주도 수양회가 남긴 좋은 인상이 향수처럼 기억에 남아서, 3년이나 지났고, 코로나로 인하여 지친 심신을 힐링 하기 위해 제주도만한 곳이 없으니 다시 한번 제주도로 갔으면 좋겠다는 적극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어서 자신을 가지고 정하게 되었다는 그 경위를 설명하였다. 제주도는 지난 3년 동안에 몰라볼 만큼 변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교단본부사무실안내

대표전화 : 02) 742-3538 팩 스 : 02)742-3539
사무총장 : 박만진 목사 010-6358-0191
계좌번호 : 농협 301-0116-9322-81(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45, 임호빌딩 801호

특회서신

산불의 교훈



총회장 박형진 목사
(새은혜교회)

지난 한 달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목사님, 장로님, 사모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여러분께서 각처에서 거둔 여러 승리에 대하여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그런 중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굳게 서 있음이 성령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총이라 믿기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19의 변형 오미크론이 잔뜩 성이라도 난 듯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종식은 고사하고 확진 자의 수가 사람들의 평안을 위라파라 흥분하고 있는 듯싶어 안타깝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20대 대통령 선거가 무리 없이 끝나서 얼마나 행인지요?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이 어떤 정당소속이거나, 어디 사람이거나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믿음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제 그 대통령과 새 정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정당이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것이 성경말씀이고, 성숙한 시민정신이라는 믿음과 생각이 있어서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은 동해안 일대의 산불 소식이었습니다. 올진군 4개 읍·면, 삼척시 2개 읍·면의 산야를 여지없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이번에 화마가 남긴 상처가 통계청에 기록을 남긴 이래 가장 크다 하니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위중한 상황에서 단 한명의 인명피해가 없었고, 소중한 산림자산인 수령 200년 이상의 금강송 8만5,000여 그루의 군락지를 지켜낸 것은 천만다행이라 할 것입니다. 이금강송은 예부터 궁궐 건축과 함께 국보급 문화재 복원에 사용되는 귀한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산불이 남기고 간 손익계산만 하고 아파하거나 책임전가만 할 것이 아니라 교훈을 얻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작은 실수가 거대한 피해를 불러 온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약 3:5월에 ‘해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 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는 이 말씀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르긴 해도 9월간 지속된 그런 불의 시작은 참으로 작은 불씨였을 것입니다. 화재현장을 감시하는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는 땀땀불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니 더욱 그러합니다. 이 얼마나 어이 없는 일입니까?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지면서 주택과 창고, 공장 등 시설물 643개 시설을 집어 삼켰고, 산불 피해 영향구역이 올진 1만 8,463헥타르(ha), 삼척 2,460헥타르(ha) 등 총 2만 923헥타르(ha)로 파악됐는데 그 면적은 여의도 면적(290ha)의 75배, 축구장(0.714ha) 3만492개에 해당하는 규모라니 일이 벌어질 뻔입니다. 3월4일 오전, 올진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원도 삼척까지 확산되면서 9일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이번 산불은 198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장 산불로 기준 2000년 강원 동해안 산불 191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진화에 걸린 시간이 무려 213시간으로 역대 가장 긴 시간이 되었습니다.

둘째, 능력의 하나님만이 완벽한 해결자임을 실감하였습니다. 고전1:25절에 “하나님의 미려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하신 그 말씀을 실감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13세간에 걸친 주불 진화에 얼마나 많은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었는지 그 역시 역대 최고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방부 쪽의 발표에 의하면 4일 이후 누적 지원 현황을 보면 육군병력 4,120여 명과 헬기 75대, 해군 930여 명, 공군 170여 명과 헬기 14대, 해병대 1990여 명이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때에 우리는 그야말로 “강 건너 불구경”이라는 말을 실감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수밖에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를 기다렸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마침내 비를 내리셨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200시간으로도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10분 정도로 족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소낙비가 쏟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뿌려주시는 단비가 거센 화마의 반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족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부르짖는 것이 때사에 정답입니다. 이것이 이번 산불을 통하여 받은 교훈이었습니다.

2022년 제42회 전국목사·장로 기도회

주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리라! (삼상7:12)



총회장 박형진 목사
(새은혜교회)



증경총회장 류현욱 목사
(동명교회)



오인호 목사
(성남침례교회)

• 일 시 : 2022년 5월 23일(월)-24일 (화)

(접수: 오후3시부터, 개회예배 4시 시작)

• 장소 : 흥익대학 국제연수원 / 전화 (044)860-7000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안터길 89

• 참석 : 목사, 장로(부부도 가능)

• 회비 : 노회찬조 200,000원, 개인 20,000원

• 숙소 : 노회별 예약 2인실 6만원 3인실 7만원

• 통장 : 농협 301-0116-9212-81/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 광고 : 광고후원 추천 부탁드립니다.

• 참석인원 확인요망(식사준비, 방예약)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

03127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95-11, 임호빌딩 801호 전화:02)742-3538 팩스:02)742-3539

총회장 박형진 목사
서기 김정호 목사

社 說

전(前)대통령 귀향 날의 교훈

지난 24일(목요일) 오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대구 달성의 작은 마을로 모아졌다. 삶의 온갖 영욕을 겪고서 용케도 살아남은 한 여인, 전(前)대통령의 귀향을 환영하고 맞이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마지막까지 기쁨을 잃지 않은 당당한 모습이었다. 5년 전에 입었던 그 옷에 올림머리스타일 그대로였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건강해 보여서 그나마 다행이라 싶었다. 5년의 영어(圍圖)의 삶, 그리고 병원에서 보낸 치료기간을 더하면 국민과 격리된 세월이 상당한데 그분을 맞이하는 인파는 누가 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나라 물론 있었었다.

우리는 한 순간에 색깔이 달라도 너무 다른 세 사람 즉, 과거, 현재, 미래의 대통령을 동시에 보아야하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되었다. 적잖은 고향사람들과 지지자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면서 새로운 보금자리에 정착하는 과거의 대통령, 그것도 탄핵을 당해서 완전 실패한 대통령이 첫째 사람이고, 둘째 사람, 현재의 대통령은 180석 절대다수의 의석에 민주되어 20년 집권을 호언장담하던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다.

그는 반쯤 붉은색 이념의 정파를 뒤탈삼아 온갖 만용을 다 저지르며 국민을 속여오다가 5년 단임으로 정권을 내어주었다. 그도 모자라서 세간에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니 그 분의 지금 심경이 어떠한가? 임기 만료일을 눈앞에 둔 절박한 시점인데도 아직도 대통령이라는 절대 권력에 만족되어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대통령을 보는 국민들의 심사가 어떠한가?

그리고 셋째 사람, 아슬아슬하게 턱거리하여 24만 표 남짓 득을 남겨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자리매김을 해 가는 미래 대통령이 셋째 인물이다. 그 분이 여기에 이르기까지 남긴 진기록은 앞으로 깨지기 어려운 기록들이라고 정치 평론가들은 입을 모은다. 검사 출신으로서 대통령에 오른 첫 사람이요, 국회의원 당선이라는 것이기 이하고, 여든, 아든 정당생활을 경험한 일이 전혀 없으면서 대통령이 된 인물이기도 하다.

그의 언행에 시선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

한일일 게다.

이 세 사람 대통령들을 동시에 보면서 혼란스러워해야하는 회한한 나라가 세상 천지에 또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묘한 현장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고자 하심일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 교만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거기에 거짓과 사술이 더해지면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보편적인, 아니 상식적인 일이 아닌가?

공정을 말하면서 불공정이 대세인 나라로 만들고, 소통을 노래하듯 하면서 불통으로 일관한 그마지막이 어려움을 미래 대통령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4선의 원으로서,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이루어지 못한 꿈이 많다는 말로 인사한 그 분이 행여 다시 나서서 어떤 역할을 하려한다면 누군가 좀 말려주었으면 좋겠다.

이제 파곤한 인생의 나래를 접고 편안한 마음으로 달성의 착하고 마음씨 고운 이웃들과 더불어 이웃집 아줌마(?)로 여유자적 하는, 그래서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으로 기억되도록 마무리를 하는 것이 명예회복이라 생각하기에 하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치지형이 하수상해서 그를 그냥 놓아둘는지 그것이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제 단 몇 날 후면 구중궁궐을 벗어나서 별로 반기는 이 없을 양산으로 내려갈 준비며, 마무리하기에도 촉박할 터인데, 안보 공백을 염려하는 애국자현하는 것은 할라우드 액션이라는 것쯤은 모두가 아는 바이니 그나마 남은 정력 낭비하지 마시고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라는 달성 그 분의 고마운 덕담이 헛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기 위해서 푸른 색기와집에는 발도 드러놓지 않겠다는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3월 24일의 현장교육을 잊지 마시고, 국민과의 약속을 100% 지켜서 부디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대통령의 역사를 남기기, 그 일을 넘어서 독일의 여장부 앙겔라 메르켈 같은, 오늘의 스웨덴이 있도록 초석을 놓은 타계 엘란데르 총리와 같은 족적을 남겨 주십시오 하는 기대어린 부탁을 해 본다.

총회세계선교회 제1차 임원회

베트남 153 신학교 학생 19명 장학금 지원 등 사업보고 청취

총회 세계선교회(이사장 이수봉 목사)는 지난 3월 1일(화) 11시, 전북 개혁신학원(학장 이경근 목사) 소회의실에서 1차 임원회를 열고 현안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앞선 개회예배는 선교서기 김중봉목사(낙원교회)가 인도하고, 본부장 김만술목사(세복장)가 기도하였다.

이날 설교자로 나선 이사장 이수봉 목사(엠마오선교회)는 교회와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이날 예배는 감사 유희철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이날 임원회는 훈련원 부원장 이하종목사(하늘문교회)의 기도로서 회무가 시작되었다.



의장 이수봉목사의 주제 하에 진행된 회의에 보고된 주요 사업보고는 다음과 같다.

1. 중국 쿤밍7개 지역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350만원, 2. 8월31일~10월1일, 제주도 글로벌 신학교 지

원 166만원, 3. 베트남153신학교 1년6개월, 지원 및 봉사. 4. 베트남 153신학교 학생 19명 고신대학교 입학지원. 5. 목회자, 선교사, 신학생, 영성수련회. 200만원 지원, 서기 김중봉목사의 기도로 폐회하였다.

전북동노회 제173회 정기회 성료

주상기 목사 노회장 추대; 성대한 목사 임직예식 거행

전북동노회(노회장 정인직 목사)는 지난 3월15일(화) 오전10시 전북개혁신학원(원장 이경근 목사) 4층 대강당에서 제173회 정기회를 개최한바 있다.

회의에 앞선 개회예배는 부노회장 주상기목사(좌포은총교회)의 인도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서기 양기만목사(평화의문교회)가 기도하고 부서기 이하종목사가 히브리서 11:13~16절 말씀을 봉독하였으며, 노회장 정인직 목사(생명의 빛교회)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곧 이어 축도함으로 개회예배를 마쳤다.

한편 이날 회의는 의장 정 인직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어 절차보고를 비롯한 각종 보고를 청취한 후에 임원선출에 들어갔다.

현재 부노회장인 주상기 목사를 박수로 추대하고, 제173회기를 이끌 임원을 별도로 같이 선출하였다.

또한 목사 임직예식은 노회장 주상기목사가 인도하고 회계 이영진장로(좌포은총교회)가 기도하였으며, 직전노회장 정인직 목사가



열왕기상18:3~4을 봉독한 후에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성경노회장 이경근 목사(평화의 문교회), 장로부노회장 김종민장로(동명교회), 서기 이하종목사(하늘문교회), 부서기 이길환 목사(큰사랑교회), 회의록부서기 이한희목사(케리그마교회), 회의록부서기 양정자목사(빛과진리교회), 회계 이영진 장로(좌포은총교회), 부회계 송정섭장로(임마누엘교회),

목사임직자 : 최진옥목사, 고미화목사, 이천희 목사

유호걸목사(예림교회)가 권면하고, 김관희목사(완주교회)가 축사한 후에 이날 임직 받은 최진옥 목사(신임)의 축도로 마쳤다.

총회개혁신학연구원 개강

2월 26일; 개강예배와 함께 22학년도 첫 학기 강의 시작

총회개혁신학연구원(원장 임종학 박사)은 지난 2월 26일(토) 오후, 1학기 개강예배를 드림으로 새로운 학기 수업을 시작했다. 찾아들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한

달여 늦어진 일정이었으나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새로운 교사에서 개강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교무처장 이다윗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개강예배에서 총무처장 정영덕 목사가 기도하고, 전북개혁신학원 교수부장 정완득 목사가 본문 요한복음 3장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열심히 연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교수부장 황호관 박사의 격려사가 있었으며, 원장 임종학 박사는 신입생의 입학을 축하하고, 재학생을 격려하는 동시에 교사이전과 개강을 축하하였다. 사무총장 박만진 박사로부터 총회 소식을 들은 후에 이사장 윤서구 박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전북개혁신학원 개강예배



전북개혁신학원(학장 이경근 목사)은 2022학년도 1학기 수업을 대면강의를 원칙으로 하고, 지난 3월7일 개강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오후7시, 대학부 주·야간 학생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신학교 소강당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신학부는 3월12일(토) 오후 2시에 동일 장소에서 개강예배를 드리고 본격적인 학사일정을 시작했다. 대학부개강예배는 교무처장 김기환목사(낙원교회)의 사회로 시작하고, 홍보처장 홍주일목사(목약교회)의 기도와 학생처장 정대진목사의 성경봉독(렘4:25~29)이 있었다.

교목처장 유남규 목사(어울림교회)의 찬양이 있은 후에 학장 이경근 목사(평안교회)가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신대원장 류현옥목사(동명교회)의 격려사, 실천처장 김관희목사(완주교회)의 축사가 있었다. 교수부장 정완득목사(성인교회)가 1학기의 교수진을 소개하였다.

총무처장 진상운목사(에벤에셀교회)의 공지사항과 신종코로나19에 대한 당부의 말이 있었다. 이사장 김항웅목사(효자제일교회)의 축도로 개강예배를 마쳤다.

한편 신학부 개강예배는 12일 오후2시에 교무처장 김중봉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교수부장 정완득목사의 기도가 있었고 사도행전1:1~3절을 사회자가 봉독한 후에 신대원장 류현옥목사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학장 이경근목사가 격려사, 직전학장 임종학목사(제언교회)의 축사가 있은 후 총무처장 진상운목사가 광고와 공지사항 전달했다.

이어 1학기 교수진과 신·편입생을 소개하고 인사를 나누었다. 새 학기 학사일정을 발표하고, 총회 고시부가 주관하는 준목고시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 이사장 김항웅목사의 축도로 개강예배를 마쳤다. 이번학기에 수강할 재학생은 전체43명으로 알려졌다.

2022년 106회기 고시부 준목고시 공고

1. 고시응시자격

고시응시의 자격은 헌법 제 8장 64조 1항에 의거하여 목사후보생으로서 교단직역 또는 인준신학교 및 인정하는 신학교를 졸업한 자이다. 인준신학교는 다음과 같다. 총회개혁신학원, 개신대학원대학교, 오이코스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대한신학교, 총신대학교, 합동신학대학교(M.Div).

2. 고시일정

- ① 원서교부 / 서울지역 : 교단본부(02-742-3538) 호남지역 : 전북개혁신학원(063-252-1531)
- ② 제 출 처 / 고시부서기 유남규 목사(010-4020-0675) (54920) 전북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17 이메일 : ynk8283@hanmail.net
- ③ 제출서류 / 1)고시원서(이력서, 추천서 포함) 2) 신학교(연구원 과정) 졸업증명서 3)가족관계증명서 4) 명함판 사진 3매

- 1) 원서접수 / 2022년 4월 29일 당일소인유효
- 2) 고시료 ① 원서대 / 20,000원 ② 응시료 / 400,000원(논문 및 제출과목 심사비 포함)
- ③ 특강료 / 100,000원(교재비포함)
- ◆ 접수시 응시료 및 특강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3. 고시과목

- 1) 제출과목 ① 논문제목 • 한국교회 성장(민족 복음화)과 목회자의 역할에 관한 연구 : 20매
- 양식/ 글자크기/ 견명조 11 줄간격/ 180. 여백/ 위쪽 25mm 좌우 25mm 머리말 15mm 쪽번호 아래쪽 중앙 -1- 아래쪽, 꼬리말 15mm

② 성경주해

- 구약 : 호세아 1:2~9"이슬라엘의 회개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 분량과 형식 / 논문과 동일하되 A4 5~6매

③ 설교문

- 로마서 1:16~17
- 분량과 형식 / 논문과 동일한 형식으로 A4 5~6매

④ 제출마감 / 2022년 4월 29일 당일소인유효

- ⑤ 제 출 처 / (54920) 전북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17
- ⑥ 문 의 / 고시부서기 유남규 목사 010-4020-0675

4. 위원선정

- 1) 소위원 : 3명=부장, 서기, 회계
- 2) 심사위원 배정 (1) 논문: 강대민, 박동혁, 이철영 (2) 주해: 임종학, 채영규, 이부교 (3) 설교: 윤서구, 유남규, 신현식
- 3) 과목별 세미나 강사 선정 조직신학 : 임종학, 정치 : 강대민, 교회사 : 윤서구

5. 일정 및 장소

- 1) 예비소집 및 세미나: 5월 19일(목) 11시 전북개혁신학원
- 2) 고시일 및 장소: 6월 13일(월) 11시 총회개혁신학연구원

고시부장 류현옥 목사 010-9654-5180

서 기 유남규 목사 010-4020-0675

고시료송금계좌 : KB국민은행 807701-00-010094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 고시부

총 회 장 박형진 목사
고시부장 류현옥 목사
서 기 유남규 목사

조직신학



김재성 박사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 전 부총장·조직신학)

(지난호에서 이어짐)

4.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죄

이 연구에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칭의와 의로움의 전가에 대해서 주목하고, 의로움의 근거가 되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그리스도의 모든 지상에서의 사역은 아담의 행동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시작된 두 대표자들의 대조는 19절에서 압축되어 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다.

모든 인간의 부조리와 불행한 죄악의 참상은 아담과 이브에게서 시작되었고, 인류사회에 계승되고 있으며, 문화와 문명을 담아가는 세계사의 적나라한 실재가 되고 말았다. 기독교의 기본진리는 아담의 실패와 그 후손들의 죄악이 참담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구속사역을 성공적으로 성취하시고 성령을 보내어서 복음을 받게 하여 새 언약을 맺은 것이다.

모든 인간의 대표가 되는 아담의 죄악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시작을 보여주셨다.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조를 통해서 기독교의 기본진리가 밝혀졌다.

아담은 사탄의 미혹에 넘어져서 실패했으나, 그리스도는 사탄과의 대결에서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셨다. 히브리서 2장 6-9절에서도 이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머리가 된다. 그리스도는 새로운 인류의 대표이자 머리가 되신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아담이 실패한 것들을 완전히 다시 성취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6)

치르셨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음으로 신뢰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의로움을 전가시켜 주신다.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고, 이제는 새사람이다(고후 5:17).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신 것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다. 그 뿐만 아니라, 죄 없으신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기에, 그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후 일평생 동안 율법을 모두 다 지키시고 사탄의 미혹을 이겨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그의 율법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한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이 기본 바탕에 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평생 동안 지속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고자 살아간 것을 “능동적 순종”이라고 따로 구별했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고난과 저주를 받고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은 “수동적 순종”이라고 규정하였다. 두 가지 개념을 후기 종교개

혁 정통주의 신학자들이 매우 중요하게 다뤘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두 개념을,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으로 나눠서 칭의와 의의 전가교리의 근거(the ground of justification)로 삼는 것이 타당한가? 이렇게 두 개념의 형용사를 사용해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구별할 때(distinguished chronologically), 오묘한 복음의 비밀들을 인식하게 된다.

즉, 능동적 순종은 그리스도가 성신한 이후로 지상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모든 율법을 지켜서 완전하게 순종하셨음을 말하는 것이고, 수동적 순종은 마지막 절정의 단계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속죄의 제물이 되기까지 순종하심을 말하기 때문에, 구속사의 진행 과정을 보면 두 가지로 구별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나눠보으로써, “능동적 순종”의 개념으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가 죄 없는 속죄양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고 말할 수 있다. 히브리서 4장

15-16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하였다.

그가 지상에서 살아간 모든 날 동안에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완벽한 순종을 하셨기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점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다시 히브리서의 설명을 읽어보자:

“그러므로 그가 법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십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 2:16-18).

그러나 구속사의 진행과정에서 드러나는 특징들만이 이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하게 된 이유의 전부는 아니다. “능동적”이라는 형용사는 그리스도가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그의 생애의 모든 순간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심을 의미한다.

(다음호에 이어짐)

동 정



박형진목사(총회장, 새은혜교회)

2월 20일(주)장대교회 설교
3월 3일(목) 개혁교단 워크숍 설교
3월 7일-9일 특별새벽기도회



임종학목사(증경총회장, 재인교회)

2월 24일(목) 전북개혁신학원 교수 간담회
3월 3일(목) 개혁교단 총회 워크숍 기도
3월 12일(토) 전북개혁신학 신대원 개강예배 참석



류현목목사(증경총회장, 동명교회)

2월 24일(목) 전북개혁신학원 교수 간담회
3월 3일(목) 개혁교단 총회 워크숍 기도
3월 12일(토) 전북개혁신학 신대원 개강예배 설교
3월 15일(화) 전북동노회 목사안수식 안수 기도



황호관목사(증경총회장, 본보사장)

3월 3일(수) 개혁교단 총회 워크숍 기도
3월 12일 14일 총회개혁신학연구원 강의
3월 28일 신문 편집



정완목사(증경총회장, 성인교회)

3월 3일(목) 전국교역자하기수양회 대회장으로 선임
3월 3일(목) 개혁교단 총회 워크숍 기도
3월 5일(토) 총회개혁신학원 개강설교



윤서구 목사(증경총회장, 임마누엘교회)

2월 7, 28일(월) 총회개혁신학원 강의
3월 16일(수) 교육부 화상회의
3월 19일(토) 총회개혁신학연구원 강의



이cheon 목사(증경총회장, 영복교회)

3월 21일(월) 교단특별헌금 1천만원.



이경년 목사(직전총회장, 평안교회)

3월 3일(목) 전국교역자하기수양회 준비위원장 선임
3월 3일(목) 개혁교단 총회 워크숍 축도



주상기 목사(좌포은총교회)

3월 15일(화) 전북동노회장으로 선임



박만진 목사(사무총장, 덕소제일교회)

3월 1일(화) 원주 3.1절 기념예배 참석
3월 3일(목) 총회증경, 및 임원 워크숍
3월 5일(토) 총회개혁신학원 개강
3월 16(수) 교육부 화상회의

조직신학

하나님의 형상성에 대한 논쟁은 ‘원래의 의’ 혹은 ‘무죄상태’를 주장하면서 그 논지를 벗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타락하기 이전 인간의 원래 상태에 대하여 ‘원래의 의로움 (Original Righteousness)’이라는 개념은 역사적인 필연에 의해 로마 가톨릭에서 7성례 제도를 은혜의 수단으로 제시하여 교회나 교인들을 완전히 지배하는 체제로 변질되면서 제정된 교리일 뿐 성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잘못된 이론이다. 왜냐하면 무죄성을 생략하면 신학상의 간격 (gap)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다시 인간의 문제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다루어 볼 때 인간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물로써 인류는 단일하게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종족으로 번성하였으므로 인류는 단일하다 (Unity of Mankind)는 결론이 나오지만 다윈의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경우 여러

조상이 생기게 됨으로 대표 조상론은 가능하나 육체적 조상론은 위배된다.

따라서 개신교 신학자들이 이런 이론에 근거하여 만인 형제론이나 인류의 단일성을 부인하고 백인 우월주의를 주장하기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16-18세의 식민 정책을 정당화했던 백인 우월주의 신학이 발전하게 되었다. 창세기 9장 18절 이하 10장에 근거할 때 성경은 일관성 있게 아담과 하와를 인류의 조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담과 하와의 혈통을 물려받았던 노아의 세 아들들(셈, 함, 야벳)은 현존하는 모든 인류의 조상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처럼 인류의 단일성 문제는 구원론상 강조하고 있는 사도행전 17장 26-27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한계를 한하셨으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담과

하와가 유일한 인류의 조상임을 밝히고 있다.

성경의 영감설 중 정도 영감설을 수용할 경우 인류의 단일성은 가치 없다고 판단하여 수용하고 있지 않으나 이는 식민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한 백인우월주의에 입각한 잘못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상 강조하고 있는 로마서 5장 12-21절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죄와 죽음이 한 예수를 통해 생명과 은혜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사람 구세주가 필요한 것이다. 이처럼 인간은 단일 인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역시 하나이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류에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인류의 타락에 기인함을 또한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인간의 타락에 관하여 인식론적

회의론자인 스코틀랜드 출신의 데이비드 흄(David Hume, 1711-1776)은 그의 저서 “인간 본질에 대한 교리”에서 하나님이 창조자라고 전제할 때 만약 그 분이 절대적 창조자라면 죄는 어디서 왔는가?라고 질문하면서 절대적 하나님이 죄의 발생을 몰랐다면 전지전능(Omniscience, Omnipotence)할 수 없으신 하나님이 되는 것이며 절대적 하나님이 죄의 발생을 알면서도 예방할 방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도덕성 (Goodness of God)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흄은 논리적인 작업으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안 계시지 알 수가 없다고 말함으로써 회의주의 (skepticism)의 시조가 되었다.

이처럼 죄의 기원에 관한 정확한 이해는 흄의 회의주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현재 유행하는 열린 신론 (Open Theism)에 대한



유정신 (한국성서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 타락의 시작인 죄의 기원을 먼저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한 죄의 기원에 대하여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14장은 천사의 타락에 기인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즉 죄, 악의 시작은 영계에서 출발하여 인간계로 들어왔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

영계의 타락에 대하여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서 20%는 천사의 타락을 인정하지만 80%는 천사의 타락을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나 성경은 천사의 타락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영계의 타락에 대하여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서 20%는 천사의 타락을 인정하지만 80%는 천사의 타락을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나 성경은 천사의 타락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본보 발행을 위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발행인 박형진 목사



이사장 박성욱 목사



사장 황호관 목사

보내주실 곳

농협 301-0140-5587-41

예금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전화: 02)743-3538, 010-6358-0191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본보 후원하신 분

광 고	대전 노회	최정녀	50,000
총회신학교	1,500,000	박경남	3,000,000
박 형 진	600,000	황호관	300,000
경기 노회	300,000	류현목	300,000
전북 노회	300,000	김일출	1,000,000
전북동노회	300,000	박광식	350,000
전북중부노회	100,000	조강익	50,000
서울남노회		신연식	50,000
서울동노회	500,000	박연성	50,000
경서 노회		김진영	350,000
경중 노회		육인수	50,000
남부 노회	100,000	박춘배	350,000
박 성 욱	300,000	권병락	100,000
		김정호	50,000
		김재호	1,200,000
		김종봉	300,000
		김교희	50,000
		김정호	350,000
		강대민	300,000
		노성수	50,000
		박경주	50,000
		김진기	50,000
		대한예수교장	350,000
		강형관	50,000

- 후원이사 매월 200,000원, 100,000원
- 노회이사 매월 100,000원, 50,000원
- 개인예배광고 년 300,000원
- 1년 1번 구독료 50,000원
- 기타 개인후원 등등



總 會

改革公報

연 구독료를 납부해 주십시오!!



사장 황호관 목사

“1년에 한차례
구독료를 보내주시면
신문사 운영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국 교회와 노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본보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에
큰 힘이 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실 곳

농협 301-0140-5587-41

예금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년구독료는 5만원 입니다.

※ 예배광고비는 연간 30만원 입니다.
※ 송금 후 총회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 會

改革公報

03127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95-11, 임호빌딩 801호
전화: 02)742-3538, 010-6358-0191 팩스: 02)742-3539

지상설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요한복음 20장 11 - 18절)



장영광 목사 (광일교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무덤의 문은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자 여인들은 놀라고 두려운 나머지 울고 있었습니다.

13절과 15절에 천사와 예수님께서서 각각 “왜 우느냐?”고 여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친히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올라”고 눈물을 요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울고 있는 여자들을 향해 “어찌하여 우느냐”고 하시면 그 눈물의 의미를 물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울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1.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찾고 있었기 때문

막달라 마리아가 찾던 것은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죽은 시체를 찾고 있었기에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로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죽은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무 것도 변화되지 못하고 마귀 사단과 싸워 실패한 것같은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죄와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누구를 찾고 있는가요? 하나님께서는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역사의 주권을 잡고 계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부활절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2. 순교자 예수를 찾고 있었기 때문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대한 분이며 하나님의 사람이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다가 영광스럽게 순교

한 인물 정도로 생각했기에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 주 되십니다. 그는 종교의 이론을 위해 순교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생명의 주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경륜을 따라 이 세상에 오셔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순교자의 피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흘린 언약의 피였습니다. 그의 삶은 세상 사람들을 위한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영웅의 죽음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으로 달려간 마리아는 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교자나 영웅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주 되시며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부활절을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3. 인간 예수를 찾고 있었기 때문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마리아는 “탐오녀!”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나신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마28:18-20).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고난의 날에 죄를 죄로, 악을 악으로 인식하면서 그것을 슬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망권세를 이기신 지금은 우리가 기뻐해야 할 때입니다. 이전에 죽은 신앙을 가지고 울었다면 지금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기뻐해야 합니다.

전에는 순교자를 아는 것으로 족했으나 이제는 우리를 대속하신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의 사랑과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신춘대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충년 목사를 만나 보았다.

사모님을 환송하신 직후에 정리하고 설 거름도 없이 이런 투병을 하고 계심에 대하여 전국 동역자들의 마음을 묶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교단을 사랑하고 동역자들을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는 죽음 앞에서 그 울음이 애달고 사람은 그 종언에 신중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증경 총회장으로서 동역자들과 후배들에게 꼭 남기고 싶으신 귀한 말씀을 기대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말씀, 두고, 두고 마음에 새겨 둘 귀한 말씀을 기대합니다.

1.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너무 빠르다 싶은, 한창 일하실 수 있는 연세인데 죽음을 직면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지금 생각이 어떠신지요?

집사람의 갑작스런 소천으로 일 년 동안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일 년이 지난 후 이제 일어서야지 했는데 중증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처음에는 무척 당혹스러웠습니다. 은퇴할 때도 3년이나 남았고, 서서히 정리하고 준비하면서 은퇴 후에 일도 생각해 두었는데 이런 일들이 무산 되는 것은 아닌가? 했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살고 싶은 것만큼 살며 할 일을 다 하고 가겠는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야지 하며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바꾸고 나니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채워졌습니다.

2. 사도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달려갈 길 다 달려왔으니 더 바랄게 없으나 “너희를 위하여” 좀 더 살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말씀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시간이나 기회는 항상 나를 기다려 주지 않더군요. 지나 가버리고 만다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요. 기회가 왔을 때, 시간이 있을 때,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을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 남긴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이 최적의 시간이요, 최선의 시간이라고>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남는 건 후회뿐이라는 것을 알아서 무슨 일든지 미루지 말고 지금 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3. 여유를 가지고 목사님의 뒤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사역자로, 목사로 소명을 받은 때가 언제 일니까?

20대 후반에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았습시다. 그래서 삶의 궤도를 바꾸어 신학을 하게 되었지요. 참 기특한 결단이었지요?

4. 사역하신 연수는 얼마이며 그 동안 후회하신 일은 없으셨습니까? 있었다면 무슨 일을 당했을 때인지요?

금년으로 목회사역 45년, 목사안수 받은 후로 40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그렇게 되었네요. 목사가 된 일에 대해서 후회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사역하면서 지금까지 두고두고 후회한일이 하나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경기가 열리기전인데 상암동에 파발 600명이 매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직회를 통하여 매입하고자 했는데 몇몇 분들이 주장하기를 그곳은 절대로 개발 불가지역이라면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 바람에 무산 되고 말았지요. 그때, 그 땅을 매입했다면 교회가 크게 성장했을 것이고, 지금은



지역과 교단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많이 아쉽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당차게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후회ма금입니다.

5. 목양하시는 동안 가장 보람 있었던 일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지요.

첫째는 45년 목회 하면서 한 우물만 갇습니다. 몇 번 안정된 교회에서 청빙이 있었지만 다 사양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한 교회만 섬겼지요. 지금 생각해도 참 잘했다 싶습니다. 둘째는 일산에 농지를 구입하여 오랜 세월기도하며 기다리다 예배당을 세우자 온 교우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기뻐할 때는 지금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지금도 서울에 있는 교우들 100%가 매주일 예배에 출석하고, 다수의 교우들은 새벽기도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견한지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이나 알지요. 셋째는 오랜 세월 동안 노회 일에 최선을 다했고, 마지막을 총회장으로서 총회를 섬긴 일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 모든 일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다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6. 그 일만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그랬을까? 싶은 일은 없으셨는지요?

왜 없겠습니까? 제가 성자가 아닌 걸요. 목회하면서 시행착오 한일이 많지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때 내가 좀 더 참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 되는 일들이 많아요. 후회는 아무리 빨리해도 늦는다는 말을 실감하고 늦게나마 절제하느라 힘듭니다.

7. 동역자들과 후배 목회자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면에 남기셔서 지표로 삼을 귀한말씀을 들려주시지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담후 6: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의 면류관이 준비 되었노라”라는 말씀이지요. 저는 바울의



삶을 세 마디로 요약합니다.

«싸우고, 달리고, 지키고»의 삶이 그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한길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달려온 자신을 돌아보면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자랑스럽게 우뚝 서있는 그 모습을 흠모합니다. 우리가 사도바울 같이 살수는 없지만 그 모습을 본 받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목회자의 생활원리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섬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님도 섬기는 삶을 사셨고, 초대교회 사역자들도 한결 같이 섬기는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대접받고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미 목회의 길에서 탈선한 것이니까요. 주님과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노회를 섬기고, 교단과 총회를 섬길 때 성공적인 목회자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8. 증경총회장으로서, 우리 교단과 총회를 위하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 당부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을 남기시고 싶으신지요?

우리는 자신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둘째,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셋째, 나는 앞으로 남은 길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내일을 긍정적으로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먼저는 이해와 양보의 미덕을 보여 주었으면 합니다. 자기 아집이나 생각만을 주장 하지 말고, 말을 아끼고, 참고, 섬기고, 베푸는 넉넉한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총회에 참석하면 총회에 오기를 즐겼어야 하며 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기뻐하며 총대가 된 것에 긍지를 가지는 분위기를 서로 협력하여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총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관심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보다는 긍정적인 사고나 말이 필요합니다. 총회발전은 어느 누가 혼자서 만들어 갈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힘쓰고 노력해야 할 과제입니다.

9.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 사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주셔서 다시 시작하신다면 꼭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라고 묻고 싶습니다.

건강할 때는 사실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 만 나의 일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100% 주님 일 아니었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의지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를 내려놓고 (물질, 시간, 건강) 100% 주님께 올인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임한 은총이 내게도 임하기를 기도해 주세요.

10.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결단한 아드님, 은종 전도사에게 평소에 당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슬하에 남매를 두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그 남매에게 들려주실 말씀은 무엇인지요?

아버지 목사로서 동역의 길을 가는 아들에게 평소에 들려주는 말은 첫째로 목회의 표본을 사람에게서 찾지 말고 사도들에게서 찾으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목사의 사명에 대해서는 교과서 적인 일반적인 말을 해 주지요.

마지막으로는 끝까지라는 단어를 심어주었지요. 목회는 힘들어도 끝까지, 속삭해도 끝까지, 중도에 포기 하지 말라고 늘 부탁하고 당부합니다.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해주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절대로 후회하는 일은 하지 말고 항상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라는 평범한 말을 기회 있을 때마다 격의 없이 나누는 편입니다.

11.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가슴에 새길 말씀을 남겨 두시면 참 좋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회자정리(會者定離)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은 정한이치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헤어지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합니다. 헤어짐이 좋아야 합니다. 헤어 질 때 갈등과 상처를 남기고 헤어지는 사람도 있고, 서로의 만남을 두고 두고 후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헤어지더라도 고맙고 생각나고 그립고 보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신 말씀이 금과옥조가 되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어집니다. 아주 힘든 시간인데도 잘 참아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모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사모님들이 기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잘 싸워서 승리를 거두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요강

총신대학(합동) 사이버대학 학생 모집



이사장 윤서구 목사



원장 임종학 목사

총회신학 연구원 후원 현황 (2022년 1월)
박형진 총회장-찬양반주기 / 전국장로연합회-50만원
무명-100만원 / 안산 새은혜교회-10만원

어려울때에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주신 분들과 기관들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총신 직원들 열심히 노력하여 총회신학연구원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총회신학 연구원 직원일동

과정	자격	학제	특전
목회학석사 (M.Div,eq)	-일반대 졸업자 및 동등학력자 -신학교 졸업자	6학기	* 교육부학사학위(사이버) * 졸업 후 목사안수 * 미연방부 인정학위 (오이코스대학교) * 졸업 후 목사안수
목회학 박사 (D.Min)	- 목회학석사(M.Div) 학위 - 목회경력 5년 이상자	6학기	* 미 연방부 인정학위 (오이코스 대학교)
대학부	- 고등학교졸업 - 지방신학 3년 졸업	8학기	* 교육부 인정 학위(사이버) * 오이코스대학교 편입
사모대학	- 현 목사 사모	2학기	

* 총회인준신학교 전복개혁신학연구원
* 총신대학교 - 원격 평생교육원 서울 사이버 에듀

- 접 수 : 2021년도
- 수업장소 :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45, 임호빌딩 801호)
- 문의처 : 총회개혁신학연구원 010-7294-0571 / 02)742-3538
- 후원통장 : 농협 317-0013-9840-4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국가민간자격증 교육지원 가이드

150여개 민간자격 & 30여개 국가자격과정

유망/인기 자격증을 모두 준비했습니다.

- 최고의 교수진 - 일타강사
- 고품질 콘텐츠 - HD 고화질 / 강의 품질
- 비대면 교육 - 모바일 / PC 수강가능
- 코리아 관리 - 취업경쟁력 제고

레스큐자격교육센터 - 국가 / 민간자격 총 180여개 과정 오픈

국가자격취득을 위한 최고의 교수진

- 전 국가자격과정 - 최고의 강사진 보유
- 교재구매시 무료 동영상 강의 제공
- 합격율을 높이는 최고의 교재구성

레스큐자격교육센터만의 혜택 (민간자격증)

- 동영상 수강료 / 시험 응시료 전액 무료 지원
- 100% 온라인 강의 수강만으로 자격증 취득가능
- 자격증 신청시 - 상정형 / 카드형 제공

레스큐자격교육센터의 민간자격과정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전 과정 정식등록
- 각 분야별 인지도 높은 전문협회 자격증
- 2021년 최신 제작된 HD 고화질 강좌
- 이력서에 정식으로 기재 가능
- 비대면 교육 - PC / 모바일 강의 수강 및 검정가능

(사)한류문화예술진흥원 - 레스큐자격교육센터 www.rescuecerti.com

서울종로A자격증센터
센터장 박 만 진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195-11, 임호빌딩 801호
010-6358-0191 / pmj0675@naver.com

장현심 자전 수필



수필가 장현심

중견 수필가 장현심님께서 펴낸 몇 권의 수필집 중에서 자전 수필 집인《반그리니에 물들다(2014년)》를 본지에 특임이 연재하여 색다른 읽을거리를 제공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 초대 칼럼(문용길목사)에 이은 두 번째 시도로써 여성평신도 여서 용기를 내 보았다. 장현심 집시는 황해도 장연에서 태어났다. 인천일여고를 거쳐 숙명여자대학가정관리학과를 졸업한 재원이다. 2002년 6월, 서울살이를 접고 원주 치악산 반그리니 계곡에 새 터를 잡고서 자신의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정리한 삶의 족적을 우리와 함께 나누는 것이다. 그 분은 지금 원주누리야간학교 교사, 원주노인복지관 문예 창작반 강사로서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원주00교회를 섬기고 있다.

황해도의 열일곱 군(郡) 중의 하나인 장연군, 그 중 호남면에서도 중평리에 장주애는 자리하였다. 그곳엔 앓물, 중평, 개평, 동산물이라 부르는 부

락이 논과 밭을 끼고 고즈넉이 자리 잡았다.

망배산(望拜山)은 장주애(長主愛) 넓은 들을 앞에 거느리고 바닷가 쪽으로 솟았다. 둥그스름한 구름을 확대시켜 놓은 듯한 이 산은 나라에 큰일이 생기거나 가뭄이 들면 고을의 어른들이 흰 도포 차림으로 올라가 안경을 기원하며 소원을 빌던 곳이다.

그 산엔 5월이면 진달래가 장관을 이루었다. 학교소풍장소로는 물론 싱아를 꺾고 산나물을 캐고, 여름이면 큰아이들이 등불 하는 걸 보려고 총각들이 숨어들던 곳이기도 했다.

그곳에 올라 장주애 밭을 내려다보면 중간쯤 중평이란 곳에 팔십여 호의 그만그만한 집들이 흩어져 장(張)씨 집성촌을 이뤘다. 삼천 평 넓이에 네모방정하게 미루나무가 둘러섰고, 그 안에 사과, 배, 복숭아 등 각종 과일나무가 줄지어 섰다. 그곳에 집 한 채가 있었다.

검은 기와지붕과 세 칸 마루 미단이 유리문에 반사된 햇빛이 빛을 발했다. 그 집엔 가려면 큰 개울을 건너 논두렁을 옆에 끼고 가다가 꽤 큼직한 나무다리를 건너야 했다.

복개울이라 부르던 그 개천은 집을 휘돌아 배투개로 향했다. 비오는 날 팔에는 우산을 대신하던 넓은 잎의 오동나무가, 복개울 앞에 심은 양 뽕나무에는 다다익다 불은 열매가 붉었다.

싱아 꺾던 소녀는 지금

개울 옆에 지은 녹색 지붕의 2층 다락에서는 아이들이 손만 뻗으면 버찌를 딸 수 있었다.

여름이면 더위를 피해 그곳에 배를 깔고 엎드려 책을 읽으며, 겨울이면 그 나무의 가지를 잡고 얼음을 지치기도 했다. 바로 우리 집이다. 언니 오빠들이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하여 익히 알고 있는 듯নে 선히 보인다. 내 태를 묻은 곳이며, 할머니 할아버지가 눈을 감은 곳이며, 피란 나와 살던 부모 형제들이 꿈속에서도 그리던 곳이다.

통일 되면 고향에 가서 상산골 선산의 흙을 가져다가 이남에 묻힌 부모님 산소에 뿌리기를 원했던 오빠들이 모두 돌아가셨다. 선산의 흙 퍼 나르기는 이제 내 차지가 되었다. 강화군 불은면 농도원에 이북에서와 똑같이 삼천 평 터를 마련하였다. 잡목이 우거졌던 땅에 나무뿌리를 뽑아내고 묵은 데기를 일구어 과실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가족 기르고, 농사를 지었다.

그 집은 아버지와 재연아저씨와 오빠들이 직접 지은 흙집이었다. 엉성하고 볼품이 없었다. 밤이면 천 반자 사이로 별이 보였고 겨울이면 코가 시렸 다. 친구들의 집보다 누추하고 작다는 휘돌아 배투개로 향했다. 비오는 날 팔에는 우산을 대신하던 넓은 잎의 오동나무가, 복개울 앞에 심은 양 뽕나무에는 다다익다 불은 열매가 붉었다.

이라고 생각했다. 일 년에 한두 번 고기를 먹고, 생일이나 소풍날 계란을 먹어 보던 시골 친구들과 달리, 기른 가족 덕분에 계란과 고기가 우리 집에 서는 귀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행복요인이 플러스가 되었던 것은 학교생활이었다. 통학길이 멀었지만 오가는 길을 그냥 다닌 것이 아니었다. 봄에는 쫄레, 싱아, 송이를 꺾고, 여름이면 냇가에서 물고기 더듬이질, 가을에는 아랍을 쫓노라 양달마을 응달마을을 헤집고 다녔다. 겨울철에는 물 잡힌 논에서 얼음 지치다가 메기를 잡기도 했다.

아버지는 남다른 교육철학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다. 강요가 없었다. 원하면 당신의 능력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다. 풍금을 배웠고, 붓글씨를 썼다. 바둑은 아버지가 직접 가르쳐 주셨다. 시작과 동시에 그만 두기는 했지만 한시 짓기도 마한가지였다.

아버지에게는 권위적인 모습이 전혀 없었다. 친구 같았으며 무슨 말이든 지 할 수 있는 분으로 언제나 내편이었다. 나는 아버지와 하는 얘기가 제일 재미있었다.

내가 다닌 학교는 한 학년에 두 반, 합해 봐야 백여 명이였다. 시골에선 아이라도 소꿉을 먹이거나, 아기를 보거나, 나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감자까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중에서 1등을 하기는 식은 죽 먹기였다. 결석

이 잦았지만 집에서 아버지와 공부부하하여 오히려 학교 수업이 쉬웠다.

풍금을 치면서 음악의 세계와 그것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과 삶을 윤곽하게 한다는 사실도 알았다. 독서에 맛을 들이고 그 즐거움도 만끽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지식이 그 속에 녹아있음도 간파했다.

하지만 간접경험은 나중에 깨달은 것이었고 기회만 있으면 재미로 책을 읽었다. 양서약서의 구별도 없었다. 내 수준에 맞진 안 맞진 읽을 줄 아는 글자는 모조리 읽었다. 초등학교 시절을 내 인생에서 첫 번째로 끄는 이유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자연의 풍성함과 계절의 변화, 그 정서가 만들어내는 감미로움을 속속들이 즐겼다. 어린 시절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최대한 골고루 누렸다고 생각한다. 맘껏 자유로웠다.

호기심으로 가득 찬 세상이 재미있었다.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강화도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극한상황에서 비상식량으로 생명을 버텨내듯이, 물 한 모금으로 목마름을 달래듯이, 살면서 삶의 고비를 만날 때마다 강화시절을 떠올리며 견뎠다.

그 시절은 내게 한 조각 초콜릿이며, 생명수였다. 싱아 꺾던 소녀는 지금 아스푸레한 먼 기억들을 생각하며 땅거미 지는 언저리에서 지난 세월을 그리워한다.

십자가상의 일곱 말씀 (상)

편집실 제공

교회력에 따라서 목양 스케줄을 정하지 않는 목회자라도 부활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는 없다. 종려주일과 고난 주간엔 특별새벽기도회를 갖는 것도 일반적이다.

금년에는 지난 3월2일이 재의 수요일 이었고, 4월 17일이 부활주일이다. 지금 대개의 교회들이 사순절을 지키고 있다. 이에 편집실에서는 가상칠언을 정리하여 제공함으로 부활절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려한다.

1.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눅23:34)

첫 번째 말씀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 로마 군병, 빌라도, 대제사장들의 죄, 십자가상에서 비방하는 강도들의 죄, 또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신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하신 말씀이요 기도이다. 이 말씀 때문에, 이 기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 죄는 인간의 최대의 원수요, 인간 불행의 원인이다. 죄 값은 사망이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이유가 된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제일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기에 그 이름까지도 “예수” 즉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셨다.

모든 백한 백성들의 흉악한 죄의 값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에 저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하시면 서 용서의 기도를 하신 것이다. 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위대함을 드러낸 징표이다.

예수님은 일곱 번째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라 가르치신 그 말씀을 십자가 상에서 실천해 보이심으로 우리의 용서가 어떠한지 할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으시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우리는 마땅히 보답해야 한다.

2.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눅23:43)

이 말씀은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한 강도의 간절한 회개의 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고 보장의 말씀이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낙원약속이라 생각한다. 이 말씀과 이 기도 때문에 구원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지옥 불에 떨어지는 대신 낙원 곧 천국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은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

에 못 박히셨지만 죄가 없으셨고,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였을 때 그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신 말씀이다.

한편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나 다른 강도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며, 그 강도는 십자가상, 마지막 순간에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주를 향해 간청하기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절박하게 기도했고, 그 기도는 응답되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쓰리고 아픈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구원을 갈망하는 마지막 한 영혼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을 보장하셨다.

3.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네 어머니라(요19:26~27)

이 말씀은 십자가 아래서 슬피 우는 어머니 마리아를 향한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세상에서 이별의 슬픔과 죽음의 아픔을 당하고 슬피 우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어머니들을 위한 위로의 말씀이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슬픔과 아픔을 당하는 모든 자들의 위로와 기쁨이 되셨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를 잊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를 위탁하셨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진정한 효와 부모 사랑을 배운다.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위로를 주고, 받으며 외로움 가운데서도 효와 사랑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바로 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도 도리를 바로 하셨다.

하나님 사랑만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을 강조하여 가르치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의 쓰라린 고통 가운데서도 어머니께 대한 효와 사랑을 다 하셨다.

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이 그 부모에 대한 사랑과 효가 어떠한야할 것을 친히 보이신 모범이었다. 지금 곁에 안타까운 가슴을 안고 나를 지켜보시는 부모님을 생각함이 마땅하지 않은가?

(다음호에 계속)

전국장로연합회 제49-2차 실행위원회

본 교단 전국장로 연합회(회장 김재호 장로)는 지난 3월17일(목) 오전11시, 익산 동명교회(류현욱목사) 예배당에서 제49-2차 실행위원회를 열었다.

회무에 앞선 개회예배의 인도자는 김재호장로(한소망교회)였다. 부회장 이한일장로(소성교회)가 기도하고 인도자가 담전1:12~17절을 봉독하였다.

설교자로 나선 증경총회장 류현욱 목사는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특별기도 제목을 따라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도제목은 나라와 민족의 평화를 위하여, 개혁교단 총회와 전국 개체교회를 섬기는 임원 및 목사님들을 위하여, 전국장로연합회와

모든 장로님과 섬기는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였다.

총무 조성운장로(갈교회)가 광고하고, 류현욱사의 축도로 개회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에 진행된 회의에 앞서 증경회장 이영진장로(좌포교회)가 기도하고 의장 김재호장로의 사회로 회무가 진행되었다.

서기 박병욱장로(꽃밭교회)의 회원 호명, 전회의록 서기 김수용장로(교회)의 회의록낭독, 회계 이정두장로(인월교회)의 회계보고를 받아 처리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결의된 주요안건은 한국장로회 총연합회 정기총회(4월19일)에 참석할 것과 개혁교단 목사, 장로기도회(5월23일)에 적극 협조할 것을 의결하였다.

전북동노회 여전도회 연합회(회장 홍복순 권사)는 지난 3월 22일(화) 오전 10시 30분, 제369차 월례회를 겸한 총회를 전북개혁신학원 대강당에서 가졌다.

이날 총회에 앞선 개회예배는 회장 홍복순권사(장수은강교회)가 인도하였으며, 서기 류성란집사(평안교회)가 기도하고 인도자가 시편127:1~2 말씀을 봉독한 후에 김금랑목사(00교회)의 특별찬송이 있었다.

이날 설교자로 나선 직전총회장 이경근 목사(평안교회)는 “내 인생의 보호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참가자들이 봉헌 한 다음에 이경근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예, 결산보고와 임원선출이 있었다.

전북동노회 노회장은 직전회장 홍복순 권사에게 공로패를 증정하여 격

전북 동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려하고 신· 구회장에게 각각 꽃다발을 증정하여 위로와 축하로서 총회의 대미를 장식하였으며, 평안교회는 참석회원들에게 오찬 비를 제공하여 회원들의 박수를 받았다.

부서기: 김명숙권사(좌포은총), 회계: 김원자권사(장수은강), 부회계: 배정미집사(더풍성한)

총무: 김정희권사(낙원), 감사: 홍복순권사(장수은강), 김수열권사(금상), 윤순일전도사(평안),하영숙전도사(엘마오션교)

신임 임원 명단: 회장: 김정숙권사(낙원), 부회장: 배순심권사(동명), 서기: 류성란집사(평안),

전국교회예배안내

<div><div>영복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오전: 2:00 수요일밤: 7:00 금요일아: 9:00</div></div><div>담임 이충년 목사</div><div>10218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숭호로 42-1 (대화동 1459-7) 전화 010-8955-1752</div></div></div>	<div><div>등명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오전: 2:00 수요일밤: 7:00 금요일아: 9:30</div></div><div>담임 류현욱 목사</div><div>54610 전라북도 익산시 동천로1길 14-31(동산동) 전화 (063)854-5180 / 010-9654-5180</div></div></div>	<div><div>새은혜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오전: 2:00 삼일밤: 7:00 금요일아: 9:00</div></div><div>담임 박형진 목사</div><div>1547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8 이노브라자 7층 전화 010-8424-0688</div></div></div>	<div><div>극등선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오전: 2:00 수요일밤: 7:00 금요일아: 9:00</div></div><div>담임 박봉주 목사</div><div>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14비길 11-9 전화 010-9980-1156</div></div></div>	<div><div>성인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오전: 2:00 수요일밤: 7:00 금요일아: 9:00</div></div><div>담임 정원득 목사</div><div>5508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변2길 24-6(삼천동17가) 전화 010-7285-8291</div></div></div>
<div><div>동주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오전: 2:00 수요일밤: 7:30 금요일아: 8:00</div></div><div>담임 김양석 목사</div><div>11414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심일로 185번길 110-16 전화 (031)873-6857 / 010-7221-5852</div></div></div>	<div><div>월드비전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오전: 2:00 수요일밤: 7:00 금요일아: 9:00</div></div><div>담임 김선영 목사</div><div>경기도 김포시 한강신도시 전원로 32 전원마을 월드성가네 전화 010-2301-0898</div></div></div>	<div><div>임마누엘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오전: 3:30 수요일밤: 7:30 구약예배(금): 7:30</div></div><div>담임 윤서구 목사</div><div>1313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화명로534번길 6-8(상선동) 전화 010-3722-9106</div></div></div>	<div><div>증산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오전: 2:00 삼일밤: 7:00 금요일아: 9:00</div></div><div>담임 김정욱 목사</div><div>44424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3길 11-2(성안동) 전화 (052)243-0255, 243-0344 / 010-3848-0691</div></div></div>	<div><div>소성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오전: 2:00 수요일밤: 7:30</div></div><div>담임 이승규 목사</div><div>5513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양지길 16-11(삼천동17가) 전화 (063)226-9111 / 010-7420-0634</div></div></div>
<div><div>수원성심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오전: 2:00 수요일밤: 7:30</div></div><div>담임 박춘배 목사</div><div>1622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로 412(연무동) 전화 010-2752-1634</div></div></div>	<div><div>은누리사랑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14:00 수요일오후: 7:00</div></div><div>담임 이혜동 목사</div><div>서울 도봉구 도봉로 145길 33(방학동) 3층 전화 010-2913-3059</div></div></div>	<div><div>꽃밭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오전: 2:00 수요일밤: 7:00 금요일아: 9:00</div></div><div>담임 박광식 목사</div><div>0275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3길 1(상월곡동) 전화 (02)915-0622 / 010-9161-0167</div></div></div>	<div><div>한소망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오전: 7:30 수요일밤: 7:30</div></div><div>담임 김정호 목사</div><div>5485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암길 10(반월동) 전화 010-3652-9191</div></div></div>	<div><div>김제반석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4:30 주일: 11:00 오전: 2:00 수요일밤: 7:00 금요일아: 9:00</div></div><div>담임 이부교 목사</div><div>54338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청운3길 21 전화 010-3657-0464</div></div></div>

제106회기 총회주일 세례교인 헌금

제106회기 총회주일은 2022년 1월 30일(주일)입니다.
총회주일은 총회산하 교회가 총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세례교인 헌금을 하는 주일입니다.
모든 세례교인들은 1년에 한번 1만원 헌금운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은혜교회 박형진 목사
경서노회
1,000,000원



성현교회 강대민 목사
서울남노회
4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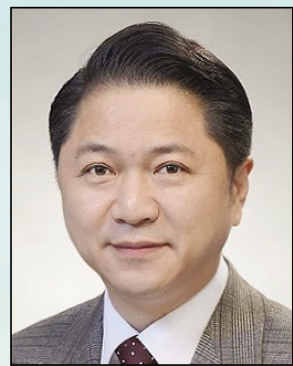
디베라교회 신연식 목사
경서노회
200,000원



꿈꾸는교회 황호관 목사
경서노회
340,000원



수원성심교회 박춘배 목사
서울남노회
1,500,000원



어울림교회 유남규 목사
전북중부노회
500,000원



비전교회 김선영 목사
서울남노회
200,000원



온누리사랑교회 이해동 목사
경기노회
200,000원



은혜로교회 이철영 목사
경중노회
150,000원



양곡제일교회 문만호 목사
서울남노회
100,000원

교단발전헌금



이충년 목사
경중노회
10,000,000원

입금계좌

농협 301-0116-921281
국민 488401-01-225487
예금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 ♥ 교회의 형편에 따라 주일을 정하여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송금 후 총회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영수증이 필요한 교회는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 | 총회장 박형진 목사
서기 김정호 목사

03127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95-11, 임호빌딩 801호 전화:02)742-3538 팩스:02)742-3539

교단본부 이전 감사헌금



총회장
박형진 목사
(새은혜교회)
1,000,000원



증경총회장
정완득 목사
(성인교회)
1,000,000원



증경총회장
윤서구 목사
(임마누엘교회)
1,000,000원



서기
김정호 목사
(한소망교회)
1,0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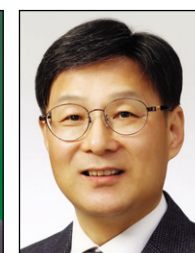
사무총장
박만진 목사
(덕소제일교회)
1,000,000원



증경총회장
임종학 목사
(재언교회)
500,000원



증경총회장
류현욱 목사
(동명교회)
500,000원



증경총회장
이경남 목사
(임마누엘교회)
500,000원



박찬섭 목사
(임마누엘교회)
1,000,000원



박경남 목사
(중심교회)
2,000,000원



증경총회장
황호관 목사
(꿈꾸는교회)
500,000원



증경부총회장
김일출 장로
(소성교회)
4,000,000원



경기노회장
박만진 목사 외
1,000,000원



경서노회장
하예성 목사 외
300,000원



전북노회장
김정호 목사 외
500,000원



전북동노회
정인직 목사 외
5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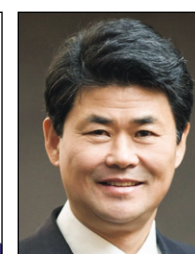
서울남노회
김정용 목사
500,000원



서울동노회장
임용태 목사
500,000원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원장 임종학 박사
500,000원



전국장로연합회
김재호 장로 외
500,000원



전남노회장
서용진 목사 외
500,000원



조신제 목사
냉온수기
500,000원



이해동 목사
500,000원

성경·찬송 비치음 박경남 목사
(중심교회)
벽시계 임용태 목사
(한빛교회)
벽시계 김정호 목사
(한소망교회)
반주기 박숙기 권사
(새은혜교회)